

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 정서지능 및 부모화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Parentification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부 교수 김정민**

박사과정 이유리***

Dept. of Child Studies, Myongji Univ.

Associate Professor : Kim, Jung Min

Doctoral Course : Lee, Yuri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parentification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Participants were 712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Seoul.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a Cronbach's α , two-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Whil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parentific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iffered by grade, emotional intelligence did not differ by grade. 2)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 regulation of emotion, expression of emotion, practice of emotion, recognition of emotion and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3) The recognition of emotion,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 practice of emotion, regulation of emotion, and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high school students. 4) Emotional intelligence played a partially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주요어(Key Words) : 부모-자녀의사소통(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부모화경험(parentification),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I. 서 론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뿐 아니라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정체감, 우정, 성, 학업 등의 다양한 발달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적응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최근

국가청소년위원회(2008)의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53.08로 매우 낮았으며, 특히 정서적 안녕감의 경우 전체 청소년의 약 40%가 우울과 불행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주요 원인들로 가족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29.6%로 가장 높았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2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고에 따르면 가족 내의 관계와 자신에 대한 지각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

* 석사학위논문의 원자료를 일부 사용하였음.

** 주 저 자 : 김정민 (E-mail : jmkim122@mju.ac.kr)

*** 교신저자 : 이유리 (E-mail : leeyuri62@naver.com)

감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변인들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크게 환경적 요인들과 개인내적 요인들로 구분하고 있다(고재홍·조기영, 2003; 노혜숙·신현숙, 2008; 민하영, 2008; 박동건 등, 2004; 신주연 등, 2005; 이해련·김경연, 2006; Adler & Fagley, 2005; Ben-Zur, 2003). 환경적인 요인들로는 가족 특성, 또래 관계, 사회문화적 구조 등이 있으며, 개인내적 요인들로는 감정 통제, 성격 특성, 정체성, 자존감 등이 해당된다. 최근 청소년 정신 건강의 심각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몇몇 선행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고재홍·조기영, 2003; 김정수, 2008; 류정희·이명자, 2007; 신주연 등, 2005; Berjent & Hernandez-Guzman, 2001; MNsci & Astedt-Kurki, 2005; Videon, 2005; Young et al., 2004; Watkins et al., 2003),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환경적 요인이나 개인내적 요인들을 다룬 것들로 두 범주에 속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밝히는 통합적인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더욱이 청소년기는 매우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나타내는 시기로 초기 청소년기와 후기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들은 상이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내 발달 단계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외부 환경적 요인들 중 개인의 일차적인 환경인 가족 변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통적으로 부모의 양육 행동은 자녀의 성격 특성, 자아 개념, 문제 행동, 삶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권재환·이은희, 2006; 김광웅·문수경, 2005; 문유선·김도훈, 2001; 이송이, 2006; Allen et al., 2007). 특히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 부모-자녀 관계는 이전 발달 단계들에 비해 덜 일방적이고, 덜 의존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가족 관계 및 역동을 평가하는 핵심 요인으로 가정하였다. 특히 심리적 안녕감은 주관적인 평가의 속성을 떠나 실제로 관찰을 통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보다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발달단계의 진행 과정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청소년기와 후기 청소년기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더불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가족 변인으로 자녀의 부모화경험을 고려하였다. 부모화경험은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모-자녀 간의 역할 전이를 가르키는 것으로 정의된다(Boszormenyi-Nagy & Spark, 1973).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전이되었을 경우,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적

절한 역할을 강요할 경우 자녀는 자신의 욕구보다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Davies, 2002; Jurkovic, 1997). 최근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급증과 같은 가족 구조의 변화 및 그에 따른 가족구성원들의 역할분담의 문제는 자녀의 부모화경험을 부추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부모화경험은 자아정체감, 대인관계, 의존성, 정서적 안정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반면(문비, 2006; 문은미·최명선, 2008; 신주연, 2003; 최명선, 2008; Davies, 2002; Jurkovic, 1997, 1998), 몇몇 연구들은 한국 사회의 경우 자녀의 부모화경험은 긍정적 강화를 받음으로써 적응, 규범 순응, 충성심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다(김효창 등, 2002; 전혜경, 2005; 정태연 등, 2002; 조은영, 2004). 이와 같이 부모화경험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성장기 부모화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수행된 것들로 청소년기의 부모화경험과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더욱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의 기대와 요구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감안할 때 청소년 초기와 후기의 부모화경험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모화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청소년 초기와 후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요인으로 정서지능을 포함하였다. 정서지능은 자신의 감정을 구별하고, 표현하며, 적응적으로 대처하도록 이끄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정의된다(Mayer & Salovey, 1990). 정서지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정서지능과 성격 특성, 사회적 유능감, 과제 수행, 문제 행동과의 관계를 다룬 것이 대다수로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감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것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대상 연령이 유아, 학령기 아동 및 성인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아 감정 변화 및 통제의 불안정성이 빈번하게 보고되는 청소년기의 정서지능은 특성과 그에 따른 영향은 따로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가운데 가족관계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박영애 등, 2004; 박영애·최은경, 2001; 이지선·정옥분, 2002; 장미선·문혁준, 2006; 최현주,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정서지능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의 매개 역할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가족 변인들 중 부모화경험의 경우 특정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선별적인 변인이므로 보다 일반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변인에 초점을 맞춘 데 따른 것이다.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초기~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 정서지능, 부모화경험이 심리적 안녕

감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지능의 매개 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학년과 성별에 따라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정서지능, 부모화경험 및 심리적 안녕감은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 정서지능 및 부모화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1] 중학생의 부모-자녀의사소통, 정서지능 및 부모화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2] 고등학생의 부모-자녀의사소통, 정서지능 및 부모화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지능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3-1] 중학생의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지능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3-2] 고등학생의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각각 초기 청소년기와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2학년생 349명과 고등학교 2학년생 363명을 포함한 총 712명(남학생 368명, 여학생 344명)을 선정하여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1) 부모-자녀의사소통 척도

부모-자녀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청소년용 질문지를 일부 수정·보완한 민하영(199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어머니용과 아버지용이 있으며 각각 2개의 하위요인(개방형, 문제형)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형 의사소통 척도(10문항)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며(예, '나는 아버지께 나의 생각이나 신념을 주저하지 않고 의논한다'), 문제형 의사소통 척도(10문항)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예, '나는 어떤 것에 대해 나의 느낌을 아버지께 솔직하게 표현하기가 어렵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의사소통의 대상에 따라 동일한 문항을 부-자녀의사소통형과 모-자녀의사소통형으로 구성하였고,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척도는 문제형 문항들을 역산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문제점이 적음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 모-자녀의사소통 척도의 Cronbach's α 는 .83이었으며, 부-자녀의사소통 척도의 Cronbach's α 는 .85였다.

2) 정서지능 척도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문용린(1996)이 제작한 정서지능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5개의 하위요인(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인식(8문항)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재빨리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을 의미하며(예, '나는 내가 화가 났는지, 짜증이 났는지 잘 구별할 수 있다'), 정서표현(7문항)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 및 표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예, '나는 내 짹이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아서 좋아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는 축하해 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감정이입(7문항)은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예, '나는 몸이 약한 친구를 보면 불쌍하고 걱정이 된다'), 정서조절(15문항)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하며(예, '나는 기분 나쁜 일을 빨리 잊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정서활용(10문항)은 자신의 정서를 이용하여 생산적인 활동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두 가지 상황을 예시로 주고 선택하도록 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예, '시험을 망쳐서 기분이 나쁠 때 나는 ①오늘 시험을 빨리 잊고 내일 볼 시험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②오늘 본 시험이 자꾸 떠올라서 공부가 잘 안 된다'). 본 척도는 총 47문항으로 1-37번 문항들은 3점 Likert 척도로, 38-47번 문항들은 두 가지 예시의 선택형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음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84였다.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정서인식이 .80이었으며, 정서표현이 .62, 감정이입이 .67, 정서조절이 .82, 정서활용이 .56으로 나타났다.

3) 부모화경험 척도

부모화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Jukovic과 Thirkield(1999)가

개발한 PQ(Parentification Questionnaire)를 토대로 다차원적 분석을 위해 고안한 FRS-A(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를 신주영(2003)과 조은영(2004)이 번안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적 부모화(9문항)는 정서적·행동적으로 어린 연령의 자녀가 가족이 물리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어떤 구체적인 일에 대해 책임을 강요 받았는지에 대한 것들이며(예, '나는 자주 우리 가족 중 누군가를 실제 돌보는 것에 대한 책임을졌다'), 정서적 부모화(9문항)는 정서적·행동적으로 어린 연령의 자녀가 가족의 갈등이나 문제를 걱정하거나 중재하였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리킨다(예, '나는 종종 나의 가족들 사이에서 중재자인 것처럼 느껴졌다'). 불공평(9문항)은 정서적·행동적으로 어린 연령의 부적절한 회생을 감수하거나 책임이 형평에 맞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의미한다(예,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회생하는 적이 많았다'). 본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화 경험을 많이 하였음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84였다.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물리적 부모화가 .67, 정서적 부모화가 .72, 불공평이 .74로 나타났다.

4) 심리적 안녕감 척도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를 김명소 등(2001)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것을 다시 김기형(2006)이 청소년용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6개의 하위요인(개인적 성장, 자아수용성,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지배력, 삶의 목적)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적 성장(6문항)은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스스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정도를 의미한다(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나 자신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자아수용성(6문항)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다양한 측면들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하며(예,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 긍정적 대인관계(5문항)는 타인과 신뢰롭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지며 타인의 복지에 대한 공감과 친밀감의 정도를 의미한다(예, '내 고민을 털어놓을 가까운 친구가 별로 없어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 자율성(6문항)은 자기 결정적이고 독립적인 특성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예, '나 스스로 정한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며 남들의 기준에 의해 나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 환경지배력(5문항)은 외부 환경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 행동 계획을 조절하는 능력,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예, '일상의 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을 잘 해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6문항)은 삶의 목표와 방향 감각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예,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본 척도는 총 34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개인적 성장이 .70, 자아수용이 .75, 긍정적 대인관계가 .65, 자율성이 .60, 삶의 목적이 .70, 환경지배력이 .63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2008년 9월 2일 서울시 소재 D 여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생 36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실시 후 대상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 및 문제점들을 수렴하여 질문지를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8년 9월 15일부터 10월 2일 까지 서울시 소재 2개 중학교 2학년생 11개 학급과 2개 고등학교 2학년생 11개 학급을 포함한 총 803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여 798부를 회수하였다. 전체 질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질문지 86부를 제외한 총 712부를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질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25분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신뢰도, 이원변량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청소년의 학년과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의사소통, 정서지능, 부모화경험 및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학년과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1) 학년과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의사소통의 차이

부모-자녀의사소통은 학년($F=6.14$, $p<.05$)에 따른 주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부모-자녀의사소통이 높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부-자녀 의사소통은 학년($F=6.77$, $p<.01$)에 따른 주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모-자녀의사소통은 학년($F=4.05$, $p<.05$)과 성별($F=4.31$, $p<.05$)에 따른 주효과가 각각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부-자녀의사소통과 모-자녀의사소통이 모두 높았으며, 모-자녀의사소통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다.

<표 1>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N=712)

성별	학년	부-자녀 의사소통	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의사소통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정서지능	물리적부모화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중학생	62.69 (12.04)	64.12 (11.73)	126.81 (22.42)	20.74 (2.92)	18.12 (1.80)	13.50 (3.04)	32.42 (5.92)	15.36 (2.33)	100.14 (11.06)	16.69 (4.28)
남자	고등학생	59.51 (11.60)	62.18 (11.10)	121.69 (20.83)	20.01 (3.28)	17.79 (1.81)	13.20 (2.87)	32.94 (5.32)	14.49 (1.88)	98.43 (9.18)	16.89 (4.68)
	합계	61.04 (11.91)	63.11 (11.43)	124.15 (21.73)	20.36 (3.13)	17.95 (1.81)	13.35 (2.95)	32.69 (5.61)	14.91 (2.15)	99.26 (10.15)	16.80 (4.49)
여자	중학생	61.95 (13.70)	65.83 (12.60)	127.77 (24.83)	20.17 (2.80)	18.12 (1.77)	13.73 (2.34)	32.52 (5.09)	14.38 (1.81)	98.91 (8.83)	17.31 (4.26)
	고등학생	60.27 (12.43)	64.18 (12.19)	124.45 (22.83)	19.52 (2.81)	17.30 (1.64)	14.23 (2.78)	32.93 (5.20)	14.01 (1.78)	97.99 (9.17)	18.13 (4.31)
	합계	61.11 (13.09)	65.00 (12.41)	126.11 (23.88)	19.84 (2.82)	17.71 (1.75)	13.98 (2.58)	32.72 (5.14)	14.19 (1.80)	98.45 (9.00)	17.72 (4.30)
	중학생	62.32 (12.88)	64.96 (12.18)	127.29 (23.61)	20.46 (2.87)	18.12 (1.78)	13.61 (2.72)	32.47 (5.51)	14.87 (2.14)	99.53 (10.03)	17.00 (4.27)
합계	고등학생	59.87 (11.99)	63.13 (11.66)	123.00 (21.81)	19.78 (3.08)	17.56 (1.74)	13.69 (2.87)	32.94 (5.25)	14.26 (1.85)	98.22 (9.17)	17.48 (4.55)
	합계	61.07 (12.48)	64.03 (11.94)	125.10 (22.80)	20.11 (2.99)	17.83 (1.78)	13.65 (2.80)	32.71 (5.38)	14.56 (2.02)	98.87 (9.61)	17.24 (4.42)

성별	학년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	부모화 경험	개인적성장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목적	환경 지배력	심리적 안녕감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중학생	16.97 (4.58)	18.26 (4.68)	51.92 (10.87)	19.76 (3.71)	18.38 (4.87)	17.93 (2.94)	19.33 (3.44)	20.04 (4.41)	15.21 (3.18)	110.67 (10.87)
남자	고등학생	17.86 (4.98)	19.27 (4.42)	54.02 (11.45)	19.37 (3.65)	16.80 (3.99)	17.15 (3.28)	18.79 (3.66)	18.77 (4.33)	14.18 (2.97)	105.05 (11.45)
	합계	17.43 (4.81)	18.78 (4.57)	53.01 (11.21)	19.56 (3.68)	17.56 (4.50)	17.52 (3.14)	19.05 (3.56)	19.38 (4.41)	14.68 (3.12)	107.75 (11.21)
여자	중학생	16.58 (4.41)	17.48 (4.36)	51.37 (9.93)	19.78 (4.02)	17.80 (4.17)	17.84 (3.23)	18.68 (3.77)	19.54 (4.38)	14.73 (3.20)	108.38 (9.93)
	고등학생	17.23 (4.69)	18.38 (4.13)	53.74 (10.31)	19.81 (3.40)	17.00 (4.19)	17.77 (2.83)	18.56 (3.64)	19.37 (4.22)	13.72 (3.03)	106.23 (10.31)
	합계	16.91 (4.56)	17.93 (4.27)	52.56 (10.18)	19.80 (3.71)	17.40 (4.20)	17.81 (3.03)	18.62 (3.70)	19.46 (4.30)	14.22 (3.15)	107.31 (10.18)
	중학생	16.78 (4.50)	17.87 (4.54)	51.65 (10.40)	19.77 (3.86)	18.09 (4.54)	17.89 (3.08)	19.01 (3.62)	19.79 (4.40)	14.98 (3.19)	109.54 (10.40)
합계	고등학생	17.56 (4.85)	18.85 (4.30)	53.89 (10.91)	19.58 (3.53)	16.90 (4.08)	17.44 (3.09)	18.68 (3.65)	19.06 (4.28)	13.96 (3.01)	105.61 (10.91)
	합계	17.18 (4.69)	18.37 (4.44)	52.79 (10.72)	19.67 (3.70)	17.48 (4.35)	17.66 (3.09)	18.84 (3.63)	19.42 (4.35)	14.46 (3.14)	107.54 (10.72)

<표 2> 학년 및 성별에 따른 각 변인들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N=712)

	변량원	자승화(SS)	자유도(df)	변량추정지(MS)	F
부-자녀의사소통	학년	1047.59	1	1047.59	6.77**
	성별	.01	1	.01	.00
	학년×성별	99.40	1	99.40	.64
	오차	109633.85	708	154.85	
모-자녀의사소통	학년	572.99	1	572.99	4.05*
	성별	609.24	1	609.24	4.31*
	학년×성별	4.023	1	4.02	.03
	오차	100169.39	708	141.48	
전체 부모-자녀의사소통	학년	3170.11	1	3170.11	6.14*
	성별	613.45	1	613.45	1.19
	학년×성별	143.42	1	143.42	.28
	오차	365504.31	708	516.25	
정서인식	학년	83.98	1	83.98	9.53**
	성별	49.79	1	49.79	5.65*
	학년×성별	.32	1	.32	.04
	오차	6241.04	708	8.82	
정서표현	학년	59.04	1	59.04	19.13***
	성별	10.71	1	10.71	3.47
	학년×성별	10.02	1	10.02	3.25
	오차	2185.42	708	3.09	
감정이입	학년	1.90	1	1.90	.25
	성별	69.64	1	69.64	9.04**
	학년×성별	27.93	1	27.93	3.63
	오차	5455.60	708	7.71	
정서조절	학년	38.54	1	38.54	1.33
	성별	.30	1	.30	.01
	학년×성별	.50	1	.50	.02
	오차	20593.70	708	29.09	
정서활용	학년	67.84	1	67.84	17.56***
	성별	95.25	1	95.25	24.65***
	학년×성별	10.74	1	10.74	2.78
	오차	2735.75	708	3.86	
전체 정서지능	학년	306.14	1	306.14	3.32
	성별	125.43	1	125.43	1.36
	학년×성별	27.59	1	27.59	.30
	오차	65258.89	708	92.17	
물리적부모화	학년	45.23	1	45.23	2.34
	성별	153.16	1	153.16	7.93**
	학년×성별	17.01	1	17.01	.88
	오차	13674.45	708	19.31	
정서적부모화	학년	105.85	1	105.85	4.84
	성별	45.38	1	45.38	2.07
	학년×성별	2.59	1	2.59	.12
	오차	15499.54	708	21.89	
불공평	학년	162.74	1	162.74	8.38**
	성별	123.35	1	123.35	6.35*
	학년×성별	.45	1	.45	.02
	오차	13747.01	708	19.42	
전체 부모화경험	학년	886.29	1	886.29	7.77**
	성별	29.89	1	29.89	.26
	학년×성별	3.42	1	3.42	.03
	오차	80746.78	708	114.05	
개인적성장	학년	5.99	1	5.99	.44
	성별	9.80	1	9.80	.72
	학년×성별	8.03	1	8.03	.59
	오차	9683.47	708	13.68	

<표 2> 계속

	변량원	자승화(SS)	자유도(df)	변량추정지(MS)	F
자아수용	학년	251.53	1	251.53	13.51***
	성별	6.71	1	6.71	.36
	학년×성별	27.49	1	27.49	1.48
	오차	13178.19	708	18.61	
긍정적대인관계	학년	32.94	1	32.94	3.47
	성별	12.56	1	12.56	1.32
	학년×성별	22.39	1	22.39	2.36
	오차	6714.54	708	9.49	
자율성	학년	19.60	1	19.60	1.49
	성별	33.97	1	33.97	2.58
	학년×성별	8.28	1	8.28	.63
	오차	9329.24	708	13.18	
삶의목적	학년	91.25	1	91.25	4.85*
	성별	.43	1	.43	.02
	학년×성별	53.36	1	53.36	2.84
	오차	13310.94	708	18.80	
환경지배력	학년	187.42	1	187.42	19.56***
	성별	39.67	1	39.67	4.14*
	학년×성별	.03	1	.02	.00
	오차	6782.53	708	9.58	
전체 심리적안녕감	학년	2674.53	1	2674.53	11.27**
	성별	54.59	1	54.59	.23
	학년×성별	534.52	1	534.52	2.25
	오차	168081.94	708	237.40	

*p<.05, **p<.01, ***p<.001

2) 학년과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

정서지능은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인식은 학년 ($F=9.53$, $p<.01$)과 성별($F=5.65$, $p<.05$)에 따른 주효과가 각각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정서인식이 높았다. 정서표현은 학년($F=19.13$, $p<.001$)에 따른 주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정서표현이 높았다. 반면, 감정이입의 경우 성별($F=9.04$, $p<.01$)에 따른 주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난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감정이입이 높았다. 정서조절은 학년과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서활용은 학년($F=17.56$, $p<.001$)과 성별 ($F=24.65$, $p<.001$)에 따른 주효과가 각각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정서 활용이 높았다.

3) 학년과 성별에 따른 부모화경험의 차이

부모화경험은 학년($F=7.77$, $p<.01$)에 따른 주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부모화경험이 높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물리적 부모화는 성별($F=7.93$,

$p<.01$)에 따른 주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물리적 부모화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다. 정서적 부모화는 학년과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공평은 학년($F=8.38$, $p<.01$)과 성별($F=6.35$, $p<.05$)에 따른 주효과가 각각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불공평이 높았다.

4) 학년과 성별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심리적 안녕감은 학년($F=11.27$, $p<.01$)에 따른 주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개인적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은 학년과 성별에 따른 주 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수용과 삶의 목적은 각각 학년($F=13.51$, $p<.001$, $F=4.85$, $p<.05$)에 따른 주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자아수용과 삶의 목적이 높았다. 환경지배력은 학년($F=19.56$, $p<.001$)과 성별 ($F=4.14$, $p<.05$)에 따른 주 효과가 각각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환경지배력이 높았다.

2. 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 정서지능 및 부모화 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부모-자녀의사소통, 정서지능 및 부모화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각각 살펴보기 위해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상관관계분석에서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변인들과 더미변수로 처리한 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표 4>와 같다. 공선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산출한 결과, 공차한계는 .39-1.00로 모두 .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계수는 1.00-2.56으로 모두 10이하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검증 결과, D-W계수가 1.77-2.11의 범위에 속하므로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음을 가정하였다.

1) 중학생의 부모-자녀의사소통, 정서지능 및 부모화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중학생의 경우 <표 3>에서와 같이 부-자녀의사소통($\beta=.54$), 정서조절($\beta=.27$), 정서표현($\beta=.16$), 정서활용($\beta=.15$), 정서인식($\beta=.14$), 모-자녀의사소통($\beta=.18$), 감정이입($\beta=.57$)의 순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녀의사소통이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29%로 나타났으며($F=139.97$, $p<.001$), 정서조절이 추가되어 설명력은 6%가 증가한 35%로 나타났다($F=93.78$, $p<.001$). 이에 정서

<표 3> 중학생의 부모-자녀의사소통, 정서지능 및 부모화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N=712)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R ²	Adj-R ²	△R ²	F
개인적 성장	1 모-자녀의사소통	.11	.34***	.11	.11		43.76***
	2 정서활용	.37	.21***	.15	.15	.04	30.85***
	3 정서표현	.30	.14**	.17	.16	.02	23.51***
	4 정서조절	.09	.14*	.18	.17	.01	19.24***
	5 불공평	-.12	-.15*	.19	.18	.01	16.74***
자아수용	1 부-자녀의사소통	.15	.42***	.18	.18		75.31***
	2 정서조절	.22	.26***	.24	.24	.06	54.38***
	3 정서인식	.19	.12*	.25	.25	.01	38.66***
	4 정서활용	.27	.13*	.26	.26	.01	30.86***
긍정적 대인관계	1 부-자녀의사소통	.09	.36***	.13	.13		50.88***
	2 정서표현	.42	.25***	.19	.18	.06	39.59***
	3 정서적부모화	-.12	-.17***	.22	.21	.03	31.55***
자율성	1 부-자녀의사소통	.09	.33***	.11	.11		42.83***
	2 정서인식	.24	.19***	.14	.14	.03	28.79***
	3 정서표현	.09	.13*	.16	.15	.02	21.40***
	4 정서조절	.24	.12*	.17	.16	.01	17.60***
삶의 목적	1 부-자녀의사소통	.14	.41***	.17	.17		70.19***
	2 정서활용	.46	.23***	.21	.21	.04	47.50***
	3 정서인식	.22	.15**	.23	.23	.02	35.15***
	4 불공평	-.13	-.13*	.24	.24	.01	27.93***
	5 정서조절	.11	.14*	.25	.25	.01	23.84***
환경지배력	1 부-자녀의사소통	.11	.44***	.19	.19		83.61***
	2 정서조절	.14	.24***	.25	.24	.06	56.30***
	3 정서인식	.19	.17**	.27	.26	.02	42.64***
	4 정서활용	.23	.15**	.29	.28	.02	34.77***
	5 모-자녀의사소통	.04	.14*	.30	.29	.01	28.83***
심리적 안녕감	1 부-자녀의사소통	.68	.54***	.29	.29		139.97***
	2 정서조절	.79	.27***	.35	.35	.06	93.78***
	3 정서표현	1.46	.16***	.38	.37	.03	69.35***
	4 정서활용	1.15	.15**	.40	.39	.02	55.89***
	5 정서인식	.80	.14**	.41	.40	.01	47.80***
	6 모-자녀의사소통	.24	.18**	.42	.41	.01	41.81***

note. 성별 더미변수: 남자 0, 여자 1

*p<.05, **p<.01, ***p<.001

표현이 추가되어 설명력은 3%가 증가한 38%로 나타났으며 ($F=69.35$, $p<.001$), 정서활용이 추가되어 설명력은 2%가 증가한 40%로 나타났다($F=55.89$, $p<.001$). 다시 정서인식이 추가되어 설명력은 1%가 증가한 41%로 나타났으며($F=47.80$, $p<.001$), 모-자녀의사소통이 추가되어 설명력은 1%가 증가한 42%로 나타났다($F=41.81$, $p<.001$).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개인적 성장의 경우 모-자녀의사소통($\beta=.34$), 정서활용($\beta=.21$), 정서표현($\beta=.14$), 정서조절($\beta=.14$), 불공평($\beta=-.15$)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수용의 경우 부-자녀의사소통($\beta=.42$), 정서조절($\beta=.26$), 정서인식($\beta=.12$), 정서활용($\beta=.13$)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대인관계의 경우 부-자녀의사소통($\beta=.36$), 정서표현($\beta=.25$), 정서적부모화($\beta=-.17$)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의 경우 부-자녀의사소통($\beta=.33$), 정서인식($\beta=.19$), 정서표현($\beta=.13$), 정서조절($\beta=.12$)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목적의 경우 부-자녀의사소통($\beta=.41$), 정서활용($\beta=.23$), 정서인

식($\beta=.15$), 불공평($\beta=-.13$), 정서조절($\beta=.14$)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지배력의 경우 부-자녀의사소통($\beta=.44$), 정서조절($\beta=.24$), 정서인식($\beta=.17$), 정서활용($\beta=.15$), 모-자녀의사소통($\beta=.14$)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고등학생의 부모-자녀의사소통, 정서지능 및 부모화 경험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고등학생의 경우 <표 4>에서와 같이 정서인식($\beta=.40$), 부-자녀의사소통($\beta=.32$), 정서활용($\beta=.28$), 정서조절($\beta=.15$), 모-자녀의사소통($\beta=.13$) 순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인식이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6%로 나타났으며($F=66.83$, $p<.001$), 부-자녀의사소통이 추가되어 설명력은 10%가 증가한 26%로 나타났다($F=61.38$, $p<.001$). 이에 정서활용이 추가되어 설명력은 7%가 증가한 33%로 나타났으며($F=58.32$, $p<.001$), 다시 정서조절이 추가되어 설명력은 2%가 증가한 35%로 나타났다

<표 4> 고등학생의 부모-자녀의사소통, 정서지능 및 부모화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N=712)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R ²	Adj-R ²	△R ²	F
개인적 성장	1 정서활용	.52	.27***	.08	.07		29.22***
	2 정서인식	.25	.22***	.13	.12	.05	25.18***
	3 부-자녀의사소통	.04	.13**	.14	.13	.01	19.43***
	4 성별	.76	.11*	.15	.14	.01	15.91***
자아수용	1 정서조절	.23	.30***	.09	.09		36.05***
	2 부-자녀의사소통	.09	.26***	.16	.15	.07	33.19***
	3 정서활용	.41	.19***	.19	.18	.03	27.33***
긍정적 대인관계	1 불공평	-.23	-.32***	.10	.10		40.06***
	2 정서인식	.25	.25***	.16	.16	.06	26.08***
	3 정서활용	.26	.16**	.18	.18	.02	10.46**
	4 성별	.69	.11*	.20	.19	.01	5.36*
	5 정서표현	.22	.12*	.21	.20	.02	6.62*
자율성	1 정서인식	.34	.29***	.08	.08		32.23***
	2 모-자녀의사소통	.05	.15**	.10	.10	.02	20.65***
삶의 목적	1 정서활용	.67	.29***	.08	.08		33.00***
	2 부-자녀의사소통	.09	.25***	.15	.14	.07	30.44***
	3 정서인식	.26	.19***	.18	.17	.03	25.88***
	4 성별	.95	.11*	.19	.18	.01	20.97***
환경지배력	1 정서인식	.34	.34***	.12	.12		48.12***
	2 부-자녀의사소통	.07	.28***	.20	.19	.08	43.58***
	3 정서활용	.41	.25***	.26	.25	.06	41.29***
	4 정서조절	.07	.12*	.27	.26	.01	32.72***
전체 심리적 안녕감	1 정서인식	1.87	.40***	.16	.15		66.83***
	2 부-자녀의사소통	.39	.32***	.26	.25	.10	61.38***
	3 정서활용	2.17	.28***	.33	.32	.06	58.32***
	4 정서조절	.42	.15**	.35	.34	.02	47.49***
	5 모-자녀의사소통	.16	.13*	.36	.36	.01	39.24***

note. 성별 더미변수: 남자 0, 여자 1

* $p<.05$, ** $p<.01$, *** $p<.001$

($F=47.49$, $p<.001$). 마지막으로, 모-자녀의사소통이 추가되어 전체 설명력은 총 36%로 나타났다($F=39.24$, $p<.001$).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개인적 성장의 경우 정서활용($\beta=.27$), 정서인식($\beta=.22$), 부-자녀의사소통($\beta=.13$), 성별($\beta=.11$)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수용의 경우 정서조절($\beta=.30$), 부-자녀의사소통($\beta=.26$), 정서활용($\beta=.19$)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대인관계의 경우 불공평($\beta=-.32$), 정서인식($\beta=.25$), 정서활용($\beta=.16$), 성별($\beta=.11$), 정서표현($\beta=.12$)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의 경우 정서인식($\beta=.29$), 모-자녀의사소통($\beta=.15$)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목적의 경우 정서활용($\beta=.29$), 부-자녀의사소통($\beta=.25$), 정서인식($\beta=.19$), 성별($\beta=.11$)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지배력의 경우 정서인식($\beta=.34$), 부-자녀의사소통($\beta=.28$), 정서활용($\beta=.25$), 정서조절($\beta=.12$)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서지능이 갖는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세 단계 접근 모델에 근거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지 살펴보았으며, 두 번째 단계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마지막 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새로운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하여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 동시에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1) 중학생의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부모-자녀의사소통이 매개변인인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beta=.45$, $p<.001$), 독립변인인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종속변인인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beta=.56$, $p<.001$). 또한 매개변인인 정서지능이 종속변인인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과 동시에($\beta=.32$, $p<.001$), 독립변인인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종속변인인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였다($\beta=.41$, $p<.001$). 그러므로 정서지능은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고등학생의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부모-자녀의사소통이 매개변인인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beta=.24$, $p<.001$), 독립변인인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종속변인인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beta=.40$, $p<.001$). 또한 매개변인인 정서지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과 동시에($\beta=.37$, $p<.001$), 독립변인인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종속변인인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였다($\beta=.31$,

<표 5> 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N=712)

학년 단계			β	R^2	F
중학생 심리적 안녕감	1	(독립변인 → 매개변인) 부모-자녀의사소통 → 정서지능	.45***	.21	89.72***
	2	(독립변인 → 종속변인) 부모-자녀의사소통 → 심리적 안녕감	.56***	.31	155.88***
	3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 부모-자녀의사소통 → 심리적 안녕감 2) 정서지능 → 심리적 안녕감	.41*** .32***	.39	111.85***
고등학생 심리적 안녕감	1	(독립변인 → 매개변인) 부모-자녀의사소통 → 정서지능	.24***	.06	21.54***
	2	(독립변인 → 종속변인) 부모-자녀의사소통 → 심리적 안녕감	.40***	.16	69.18***
	3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 부모-자녀의사소통 → 심리적 안녕감 2) 정서지능 → 심리적 안녕감	.31*** .37***	.29	72.67***

* $p<.05$, ** $p<.01$, *** $p<.001$

p<.001). 그러므로 정서지능은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기~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년과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의사소통, 정서지능, 부모화경험 및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와 더불어 부모-자녀의사소통, 정서지능 및 부모화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하였다. 나아가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의사소통은 학년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는데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부-자녀 혹은 모-자녀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소년 후기의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청소년 초기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청소년기 발달 과정에서의 부모의 권위에 대한 불순응, 부모로부터의 독립욕구, 자율적인 의사결정의 기대, 또래집단의 영향 등의 증가와 연관이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입시 부담의 가중과 같은 환경적 요인도 부모-자녀의사소통의 학년 차이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모-자녀의사소통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 모녀 간의 상호작용은 청소년기에도 어느 정도 유지됨으로써 모자, 부녀 혹은 부자 간 관계와 구별됨을 알 수 있다.

정서지능의 경우, 학년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위요인인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활용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서지능의 특정 영역들이 청소년 초기에 더욱 활성화 되는 발달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청소년 후기의 학업 관련 스트레스로 인해 특정 영역들이 둔감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서지능의 몇몇 하위요인들에서 성차가 나타났는데, 정서인식과 정서활용은 남학생이, 감정이입은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과 생산적 활동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감정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남을 가리킨다. 반면,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감정이입의 능력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인식 및 정서활용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 상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 과제지향적 사고 등과 관련이 있으며, 감정이입이 관계지향적, 공감적 성향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부모화경험의 경우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고등학-

생이 중학생에 비해 높은 부모화경험을 나타냈다. 이는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 내 자녀의 역할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증가할 뿐 아니라, 자녀 스스로도 자신을 성인으로 지각하고 가정 내의 문제들을 감당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태도를 갖는 것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물리적 부모화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사일, 보육 등의 부담을 지는 사례가 많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녕감 또한 학년에 따른 차이를 나타했는데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보였다. 특히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들 중 자아수용, 삶의 목적, 환경지배력은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들 하위요인들은 청소년기의 자아 및 진로발달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후기 청소년기에 비해 초기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 후기 청소년기는 자신의 목표와 객관적인 평가 간의 격차가 명확해지는 데다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 가중 등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둘째,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자녀의사소통은 개인적 성장을 제외한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환경지배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체계에서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미치는 변인으로 모-자녀 관계보다 부-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들(강완숙, 2000; 김순옥, 1996; 김영희·안상미, 2008; 장해순·강태완, 2005)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개방적인 부-자녀 간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입증하는 것이다. 단, 개인적 성장의 경우 모-자녀의사소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자녀 스스로의 전반적인 성장에 대한 평가와 변화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서지능 또한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위요인들 중 정서조절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서조절은 주로 부정적인 감정을 적응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외 정서표현은 긍정적 대인관계에, 정서활용은 개인적 성장과 삶의 목적에 각각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 간의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적절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능력이 요구되며, 목표와 변화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일의 생산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정을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부모화경험 역시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정서적 부모화는 긍정적 대인관계에, 불공평은 개인적 성장과 삶의 목적에 각각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정서적 부모화경험은 연령에 적합한 대인 간 정서 표현을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불공평의 경험은 목표 달성을 대한 동기 부여 및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셋째, 정서지능이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은 긍정적 대인관계를 제외한 개인적 성장, 자아수용, 자율성, 삶의 목적, 환경지배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하위변인들 중 주로 정서인식과 정서활용이 이에 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중학생의 경우와 유사하게 정서인식은 자율성과 환경지배력에, 정서활용은 개인적 성장과 삶의 목적에 각각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논의한대로 중학생 자녀에 비해 고등학생 자녀와 부모 간의 의사소통이 감소함으로써 정서지능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였거나, 혹은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부모와의 상호작용보다는 정서지능과 같은 개인내적 사고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일 가능성 있다.

한편, 부모-자녀의사소통 또한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중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자녀의사소통이 모-자녀의사소통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초기~후기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 부-자녀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화경험의 경우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더 빈번한 부모화경험을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찌기 부모화경험에 노출되는 것이 심리적 안녕감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구체적으로, 중학생의 부모화경험과 고등학생의 부모화경험은 모두 공통적으로 긍정적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 부모화경험이 특히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취약하도록 이끄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는 자의식이 증가하고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부모화경험은 타인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도록 만들었으므로써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감에 타격을 가져오기 쉬울 수 있다.

넷째,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서지능이 각각 부분적인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자녀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가리킨다. 즉, 부모-자녀의사소통을 통해 전달되는 특정 내용이 직접적으로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을 좌우하기도 하지만,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로부터 학습한 정서 처리 및 대처 방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 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함과 더불어 정서지능을 보완할 가족 외 변인들을 함께 다루어 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와 후기 청소년기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가족 체계 및 개인내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초기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자녀의사소통으로 나타난 반면 후기 청소년의 경우 정서지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 청소년기의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부모-자녀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의 정서지능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부모화경험은 대인관계를 제외한 청소년기의 심리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문화적 특성에 따른 부모화경험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으로 대상을 제한하여 수행된 횡단 연구이므로 향후 아동과 성인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발달적 변화를 추척하는 종단연구가 실시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회문화적 변인들(부모의 소득 수준, 학력 등), 정서지능 외의 개인내적 변인들(성격특성 등), 또래 관계 관련 변인들을 제외하였으므로 이들을 포함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강완숙(2000). 지각된 부와 모의 가치, 부/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및 부/모의 과잉통제와 대학생의 소외감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권재환·이은희(2006). 남녀 청소년의 충동성, 부모 양육태도, 개인의 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1), 325-351.
- 고재홍·조기영(2003). 청소년의 긍정적 쟈각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1(1), 166-181.
- 김광웅·문수경(2005). 부모-청소년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3(1), 71-84.
- 김명소·김혜원·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명소 · 임지영(2003). 대학생의 “바람직한 삶” 구성요인 및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83-97.
- 김순옥(1996). 부모의 의사소통행위가 10대자녀의 의사소통 개방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23(1)*, 215-234.
- 김영희 · 안상미(2008).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가족 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 *청소년학 연구, 15(2)*, 1-30.
- 김정수(2008). 청소년의 낙관성과 비관성이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1)*, 271-299.
- 김효창 · 손영미 · 박정열(2002). 발달단계로서의 ‘철들기’의 문화심리학적분석. *학생생활연구, 27*, 257-283.
- 노혜숙 · 신현숙(2008). 청소년의 감사성향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5(2)*, 147-168.
- 류정희 · 이명자(2007).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 *한국 심리학회, 4(1)*, 55-77.
- 문비(2006).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용린(1996). *한국 학생들의 정서 지능 측정 연구.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문용린(1997). EQ가 높으면 성공이 보인다. 서울: 글이랑.
- 문용린(1997). *한국 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 연구,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서울: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 연구소. 77-89.
- 문유선 · 김도훈(2001). 청소년에게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와 문제행동의 연관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2(2)*, 237-244.
- 문은미 · 최명선(2008).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료, 20(4)*, 1063-1085.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민하영(2008). 부모간 갈등 및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와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 *한국가정관리학회, 26(2)*, 33-41.
- 문혁준(2006). 시설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변인 연구: 정서 지능과 학교생활만족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10)*, 1-8.
- 박동건 · 조현주 · 최대정(2004). 직장에서의 특정 부적 정서 경험에 따른 정서조절이 수행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831-852.
- 박영애 · 최영희 · 박인전(2002). 아동의 성격특성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대한 가정학회지, 20(2)*, 123-134.
- 박영애 · 최은경(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인성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21-238.
- 신주연(2003).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병리적 의존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주연 · 이윤아 · 이기학(2005). 삶의 의미와 정서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35-1057.
- 염미애 · 문혁준(2007). 유아의 정서기능 및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4)*, 61-75.
- 이송이(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 태도와 부모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2)*, 61-71.
- 이지선 · 정옥분(2002).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기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3(1)*, 17-35.
- 이혜련 · 김경연(2006). 아동의 정서반응유형, 정서조절 전략 및 효과 탐색: 정서조절 전략 및 효과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4(7)*, 99-111.
- 장미선 · 문혁준(2006). 아동의 정서지능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4)*, 11-21.
- 장해순 · 강태완(200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3(2)*, 104-130.
- 전혜경(2006). 자녀의 부모화 및 부자유친성정과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태연 · 최상진 · 김효창(2002). 아동과 어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 성격적 관계적 및 과업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51-76.
- 조은경(1993). 부모 · 청소년 자녀간의 대인거리 · 심리적인 거리 · 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영(2004). 부모화 된 자녀의 심리적 특성 및 가족 내 영향력의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명선(2008).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1)*, 43-53.
- 최현주(2005). 아동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정서지능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초등교육학회지, 12(1)*, 195-212.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2008 한국청소년 행복지수 조사 연구.
- Adler, M. G., & Fagley, N. S. (2005). Appreciation: Individual difference in finding value and meaning as a unique predictor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73(1)*, 79-114.
- Allen, J. P., Poter, M., McFarland, C., McElhaney, K. B., & Marsh, P. (2007). The relation of attachment security to adolescents' paternal and peer relationships,

- depression, and externaliz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78(4), 1222-1239.
-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flex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Ben-Zur, H. (2003). Happy adolescent: The link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internal resources, and parental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2, 67-79.
- Benjet, C. & Hernandez-Guzman, L. (2001). Gender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of Mexican early adolescents, *Adolescence*, 36(141), 47-65.
- Boszormenyi-Nagy, I., & Spark, G. M. (1973). Indivisible loyalties: Reciprocity in intergenerational family therapy. N. Y.: Haper & Row.
- Corsano, P., Majorano, M. & Champretavy, L.(2006).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The contribu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and experience of being alone. *Adolescence*, 41(162), 341-353.
- Davies, P. T. (2002). Commentary: Conceptual links between Byng-Hall's theory of parentification and the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Family Process*, 41(3), 551-555.
- Di Fabio, Annamaria., Palazze schl., & Lelizla. (2009). Emotional intelligence, personality traits and career decision difficulties.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9(2), 135-146.
- In Bar-on & J. D. A. Parker(eds), *The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N. Y.: Jossey-Bass.
- Jensen, M. R. (1987). Psychobiological factors predicting the course of breast cancer. *Journal of Personality*, 55(2), 317-342.
- Jurkovic, G. J. (1997). Lost childhoods: The plight of the parentified child. N. Y.: Brunner/Mazel.
- Jurkovic, G. J. (1998). Destructive parentification in families: Causes and consequences, In L'Abate, L.(Ed), *Handbook of Family Psychopathology*, 237-255.
- Lopes, P. N., Salovey, P., & Straus, R. (2003). Emotional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the perceived quality of social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3), 641-658.
- Mayer, J. D., & Salovey, P. (1990). Emotion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MNSci, K. J & Astedt-Kurki, P. (2005). Familial contribution to adolescent subjective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11, 125-133.
- Petrides, K. V., Frederickson, N., & Furnham, A. (2004). The role of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in academic performance and deviant behavior at schoo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2), 277-293.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hek, D. T. L. (2005). Perceived parental control processes, parent-child relational qual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chinese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economic disadvantage.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6(2), 171-188.
- Videon, T. M.(2005). Parent-child relations and children's psychological well-being: Do dads matter? *Journal of Family Issues*, 26(1), 55-78.
- Young, J. L., Carver, P. R., & Perry, D. G. (2004). Does gender identity influence children's psychological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0(4), 572-582.
- Watkins, P. C., Woodward, K., Stone, T., & Kolts, R. D. (2003). Gratitude and happiness: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of gratitude and its relationship with subjective well-being.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1, 431-45.

접 수 일 : 2010년 01월 06일
 심 사 일 : 2010년 04월 05일
 심사완료일 : 2010년 05월 10일